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

2020.6.29. 9:00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

축 사

2020. 6. 29.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 병 두

※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I.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입니다.

오늘 마이데이터 포럼에 직접 참석 하신분들과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데이터 분야에 가장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여러분들과
뜻깊은 자리를 가지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마이데이터 산업의 활성화와 보안을 지원하시는
신용정보원 신현준 원장님, 금융결제원 김학수 원장님,
금융보안원 김영기 원장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이데이터 산업을 이끌어갈 금융권 대표 허인 국민은행장님,
빅테크 대표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님,
핀테크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을 위해 참석해주신
서정호 박사님, 최경진 교수님,
김태훈 대표님을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들께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Ⅱ.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발전방향

현재 정부는, 당면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방역, 금융안정 노력 등을 기울이고 있으며
동시에 새로운 혁신성장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성장의 핵심이
바로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디지털 뉴딜을 통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셨고
최근에는 데이터 축적을 위한
데이터 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6.18일 현장방문)

마이데이터는 우리 사회 곳곳에 흐르는
“물”과 같은 데이터가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수로를 만드는 것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산업을 통해
데이터 댐에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고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포럼을 통해
함께 고민해야될 몇 가지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① 첫째, 마이데이터는 소비자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의 데이터 이동권을 기반으로
기존에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입니다.

신용관리, 자산관리, 소비와 저축 등
소비자의 금융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라도
정보의 원천은 소비자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관점에서
마이데이터 산업 참여자들 간에
다양한 정보가 공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② 다음으로, 마이데이터 산업의 확장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오픈뱅킹 등 기존 금융플랫폼과 연계되고
마이페이먼트 등 새로운 플랫폼과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오픈 파이낸스(Open Finance)를 지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마이데이터를 통해 모아진 데이터는
데이터 결합과 유통을 통해
금융분야 뿐 아니라 비금융 분야의
산업혁신까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도 8.5일에 시행될 데이터3법뿐만 아니라
2007년에 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③ 세번째로, 마이데이터 산업은
상호주의와 공정경쟁에 기반하여야 합니다.

금융회사, ICT 기업, 핀테크 기업 모두
소비자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호주의 관점으로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 정보를 최대한 개방하여야 합니다.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창출하고
소비자들이 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표준화 작업에 적극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규제차익 없이
다양한 산업분야의 Player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④ 마지막으로, 강력한 정보보호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데이터 산업의 성패는
해킹, 정보유출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지에 달려있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IV. 마무리 말씀

8월5일 마이데이터의 도입은
우리나라 데이터경제와 금융산업에 있어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가 될 것이며,
마이데이터 산업은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로 우뚝 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경쟁과 혁신
그리고 성공을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사를 준비해주신 신현준 원장님과
신용정보원 관계자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